

단속 나서자 카페 비공개 전환… 시장 안정화가 답

〈온라인 부동산 카페〉

부동산시장 담합실태

〈下〉 알고도 손 못쓰는 정부

경찰력까지 동원해 담합세 ‘주춤’
세력화·조직화… 강력 제재 필요

“정부가 모니터링 한다는데 카톡방에 비밀번호 걸어요.”(서울 지역의 한 입주민 카톡방 내 대화)

부동산 담합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그동안 부녀회, 입주민회 등을 비롯해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면 최근엔 ‘비공개 장(場)’이 생겼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입주민 등이 카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공개 전환해 사실상 손쓰기 어려워졌다.

◆“카톡방 들어오려면 동·호수 인증해라”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부동산 담합 단속에 나서면서 허위 매물 신고가 줄어드는 등 일부 담합 세력이 움츠러드는 모양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지난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늘었다. 국토부는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스

다.

경찰력도 동원됐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정부의 단속 신호와 9·13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감소하며 일단은 담합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KISO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5418건)보다 44.3% 줄어 들었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만으로 담합 기세가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에 접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속 시그널 이후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카카오 채팅방을 비밀번호로

걸어 잠갔다. 카톡방에 입장하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호수를 입력해야 하는 등 소유주 확인을 강화했다. 카톡방에 수요자나 기자 등이 입장해 담합 행위가 알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 지역 한 입주민 카톡방에서는 정부의 담합 단속 발표 이후 ‘카톡방을 비공개 전환하자’, ‘더 이상 입장하지 못하게 하자’, ‘소유주 인증 시작하자’ 등의 얘기가 오고 갔다.

◆“신문고 제도, 강력 규제 등 필요”

이 같은 분위기에 전문가들은 호가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선 진일보됐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최근 담합이 세력화, 조직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 신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

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징역형 처벌이나 최고 수준의 벌금형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연구위원은 “수 억원씩 시세차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몇 백 만원의 벌금은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아울러 담합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카파라치 제도처럼 신고 및 포상제도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확대 정책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9·13 대책 이후 호가가 한풀 꺾이고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9·21 공급대책 이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담합도 어려워졌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담합 세력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소문만 무성한 국민연금 CIO 선임 주진형 대표 내정설에 “사실무근”

1년 3개월째 공석… 특정 후보자 없어



다. 이후 유력 후보였던 안후보가 소송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류 대표와 주 전 대표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본 뒤 두 달 가까이 최종 발표를 하지 않는 등 선임 작업이 늦춰지면서 각종 구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초에는 류 대표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류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투자자문을 한 경력이 돋보이는 후보로, 선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거나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이번에는 주 전 대표가 오는 4일부터 출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내정설이 돌았다. 주 전 대표는 국민연금 CIO 지원 자체가 업계에 큰 이슈로 부상하며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CIO 자격요건 문구가 ‘자산운용 경험’에서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으로 바뀌면서 특정 후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특정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거듭되자 이번에도 국민연금 CIO 선임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진행한 1차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다”며 선임을 포기했다. 당시 4개월 동안 시장에 온갖 억측만 남긴 채 불발된 바 있다. /김희주 기자 h89@

www.pdha.co.kr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경험해보세요 동안크림의 놀라운 효과”

P+DNA
피디엔에이 크림

구입문의 /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 피부관리霜의 연어케어 받아보셨나요?

이제 바른는 크림으로 경험해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은 식약처 고시 주제제성 성분인 아데노신(연어)과 아데인 바다 송이에서 추출한 Sodium DNA, 병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치마씨 추출물, 백년초열매 추출물, 흙리브 오일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함유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 이번 추석엔 동안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또는 남편의 얼굴을 기만히 들어다본 적, 언제였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 받던 시간, 이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순하고 편안한 사용감 더없는 만족감까지. 크림 하나로 경험하는 동안 관리, 피디엔에이 크림, 당신의 아름다운 변화, P+DNA가 함께 합니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